

“힘내라 대구!” 광주시민 응원 실은 희망트럭 뒀다

시민단체·기업 등 십시일반 모은 기부물품 전달 차량 대구로
마스크·광주김치·건강음료 등 12종 3115세트 5400만원 상당
이용섭 시장 “따뜻한 위로 되길”...권영진 시장 “위기 극복 큰 힘”

코로나19 여파로 깊은 시름에 잠긴 대구 시민을 응원하는 광주시민의 마음을 실은 희망트럭이 대구로 출발했다. 23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대구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광주 시민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대형 탑차(10t) 한 대가 이용섭 시장 등 광주시 관계자와 광주시민의 환송을 받으며 대구로 떠났다. 차량에는 광주시민들이 대구를 응원하며 십시일반 모은 기부물품으로 한 가득 채워졌다. 대구시민을 응원하기 위한 이번 물품기부 행사는 광주시민을 시작으로 지역 내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역 사회각계에서 힘을 보탤다.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인 물품은 방역 물품을 비롯한 건강음료 등 12종 3115세트 5400만원 어치에 이른다. 특히 이번 기부물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상권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상품도 상당수 포함돼 그 의미를 더했다.

입해 기부했다. ‘문화인광주’는 ‘코로나 이김! 프로젝트’로 양동시장 대표 물품인 완도김 50박스를 구매해 대구시민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기부차량에 실었다. 이날 기부차량에는 대구 어린이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재능기부 물품도 한 가득 실려 주변을 더 훈훈하게 했다. ‘민간어린이집광주연합회’는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직접 제작한 어린이용 수제마스크 1200개를 기부했다. 이숙희 회장은 “대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 밖에도 농협광주전남본부 홍삼 100세트, 참든건강과학 아채수 180상자, 월드코스텍 살균수 15통, ㈜디자인앤본두 식혜음료 300상자, 광주김치타운관리사무소 김치 20상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빗어울수 240상자 등이 차량에 실렸다. 이용섭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시민을 위해 나눔에 동참한 광주시민의 위대한 시민정신에 감사 드린다”며 “광주시민의 온정 어린 나눔이 코로나19로 지친 대구시민에게 따뜻한 위로를 가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에서 기부물품 전달 차량을 맞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주의 연이은 응



광주 시민과 공무원들이 23일 오전 시청 행정동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에게 전달할 기부 물품 차량을 환송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원인 대구시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광주시는 앞서 병상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대구 코로나19 환자 환자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병상제공에 나섰다. 광주시의사회 달빛의료지원단과 조선

대학교 병원 간호사들은 대구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구슬땀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광주시민들이 대구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한 기부금품도 총 59건 10억5000여 만원 상당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심각한 마스크 부족사태를 겪는 대구에 마스크 4만개와 손소독제 3000개, 자가격리자 생필품 세트 2000개, 광주정연한방병원에서 기탁한 경옥고 1000세트를 지원했으며,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 업체 ㈜지형건설은 대구지역 소

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지역 대표은행인 광주은행도 대구은행을 통해 마스크 1만개를 전달하는 등 대구 시민 응원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다음달 전두환 재판 방청도 제한

코로나19 여파 절반으로
다음달 열리는 전두환(89)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방청할 기회가 줄어들게됐다.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재판 방청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다.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집중 심리를 위해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장은 그러나 전씨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 방청을 희망하는 지역민들이 많을 것을 감안,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청권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일반 방청석(65석)의 절반 가량인 33석에 대해서만 방청을 허용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 가족 등을 위해 제공하는 우선 배정 방청석(38석)은 그대로 운영된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일반 방청객의 경우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 번호에 착석하고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이 제한된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피년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단,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서부경찰, 자가격리 수칙 위반 확진자 ‘혐의없음’ 종결

자가격리 수칙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3번 확진자가 혐의를 벗었다. 광주서부경찰은 23일 광주시 의뢰를 받아 코로나19 3번 확진자 A(30)씨에 대한 자가격리 수칙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을 확인했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주거지 이탈 등의 위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같은 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고 빛고를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은 A씨는

자택과 생활 치료센터인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2주간 격리됐다. 격리 해제를 앞두고 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다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광주시는 A씨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한 4일 사이 격리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성 착취 ‘n번방’ 회원 전원 수사할 듯

문 대통령 강력 대응 지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회원 전원 수사 가능성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회원들의 디지털 성 착취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 수사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을 이용한 회원 전원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신중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게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번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훙친 차량 갈아타고 화순~광주~남원 질주한 ‘간 큰 중학생’

○··훙친 차량을 갈아타면서 무면허로 광주에서 전북 남원까지 질주한 간 큰 10대 중학생이 경찰서행. ○··2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14)군은 지난 20일 새벽 화순에서 차량 옆 쇠가 들어있는 포테 차량을 훔쳐타고 광주 동구 급남로까지 왔다가 문이 열린 모닝 차량을 발견, 갈아타고 도주해 북구로 옮긴 뒤 지난 21일 새벽 5시 50분께 다시 레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평생 어부바 신협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